

세계한인회장대회 10월 1일 개막...60개국 360명 참가

- 재외동포청, 4일간 서울서 개최...‘제18회 세계한인의 날’ 기념식도 열어
- ‘나의 조국, My Korea’,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등 프로그램 눈길

<2024년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>

- 일정 : ‘24.10.1(화)~4(금)
- 장소 : 롯데호텔월드(서울 잠실)
 - ※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: 10.4(금)
- 참석인원 : 총 430여 명(국외 360명 + 국내 70명)
- 주최 및 주관 : 재외동포청
- 슬로건 : “자랑스런 우리동포, 함께가는 대한민국”
- 주요 프로그램 : 개·폐회식,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, ‘나의 조국 My Korea’,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, 정부와의 대화 등

□ 재외동포청(청장 이상덕)이 주최하는 2024년 세계한인회장대회가 오는 10월 1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월드에서 개막한다.

○ 대회는 나흘동안 열리며 4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진행된다.

○ 행사에는 60여 개국 현직 한인회장 및 대륙별한인회총연합회 임원 등 360여 명과 재외동포 유관기관 초청인사 70여 명 등 총 430여 명이 참석한다.

□ ‘자랑스런 우리동포, 함께가는 대한민국’이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올해 대회에는 ‘나의 조국, My Korea’, 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 등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.

○ 대회 시작을 알리는 ‘나의 조국, My Korea’는 전문가 강연과 토크콘서트를 통해 한인회장들이 거주국에서 한국을 더 잘 알릴

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된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, 자랑스러운 한인으로서는 자긍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.

- 또한, 세계한인회장대회 최초로 한인회장들을 대상으로 여는 ‘재외동포단체 지원사업 설명회’에서는 재외동포청의 동포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한인사회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점 지원 분야, 지원 기준, 지원 과정 등 지원사업 관련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- 정부와의 대화, 지역별 현안 토론, 한인회 우수사업 사례 발표 등 예년과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된다.
- ‘정부와의 대화’에서는 재외동포청을 포함한 법무부, 병무청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재외동포와 관련한 민원 서비스, 법무, 병무, 보험 사항에 대한 재외동포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, 동포들의 제안과 의견을 듣는다.
-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법원행정처, 병무청, 국민연금공단, 대한법률구조공단, 재외한인구조단, 조혈모세포은행협회, 인천광역시 등은 대회 기간에 상시 상담관을 열어 동포들의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.

□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세계한인회장대회는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참여하여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, 한인회장 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촘촘히 연결하는 한편, 거주국에서 재외동포들의 지위 향상 및 권익 신장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. 끝.

담당	재외동포청	책임자	과장 대행	이희경 (032)585-3197
	재외동포협력총괄과	담당자	사무관	박한울 (032)585-3200